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③

다시 돌아와 지뢰 교육부터 받는 학생들



전쟁 발발로 인해 학생 수의 30%만 돌아온 수레꾼 뽀디봉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정규 교과 수업에 앞서 지뢰와 폭발물 안전 교육을 먼저 받고 있다.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이 뽀디봉 마을에 초등학교를 세운 것은 2008년의 일입니다. 당시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되던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이란 현재 기준으로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000달러 이하인 국가를 가리킵니다. 캄보디아는 2000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00달러에 불과했고, 2010년에도 700달러 수준이었으며, 현재 역시 2000달러를 간신히 넘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학교를 세우던 당시 캄보디아의 신비한 유적인 앙코르와트를 관광하기 위해 하루 3편의 비행기가 떠야 할 정도로 한 해에 3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씨엠립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씨엠립으로 가는 한국 직항편이 모두 사라졌고, 한국 사회에서 앙코르와트는 점차 기억의 저편으로 밀려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캄보디아와 태국, 미얀마 등지의 국경 지역에는 범죄 집단들이 깊은 뿌리를 내리며 보이스피싱, 납치, 고문과 살해 같은 끔찍한 범죄를 자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이 같은 범죄를 묵인하거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캄보디아 국경 지역은 다시 좋지 않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한국의 기독교 선교사들과 전도사들이 한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도시 씨엠립을 중심으로 활발하고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펼치며 교세를 확장해 가는 동안, 불교계의 해외 활동은 겨우 명맥을 잇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수레꾼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약 550km나 떨어진 국경 오지 뽀디봉 마을에 학교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학용품도, 교과서도, 전기도 없었습니다. 집이라고 해도 구멍이 숭숭 뚫린 판자를 얼기설기 엮은 것이 전부였으니, 그 가난함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 모여든 학생 수는 당시에 무려 550명에 달했습니다. 마을에는 약 1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레꾼은 이들을 돕기 위해 해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우물을 파고 학교를 지원하며 나무를 심는 일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1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마을의 살림살이들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과실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전기도 들어왔으며 마실 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마을이 됐습니다.

그러나 국경지대를 점령한 태국군이 자국 국기를 꽂고 해당 지역을 태국 영토로 선포하면서 평화로운 뽀디봉 마을은 뜻하지 않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군 180명가량이 마을 인근에 주둔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선뜻 마을로 돌아오지 못한 채 주변을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30% 남짓 돌아온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은 다시 배움터에 모였지만, 수업보다 먼저 지뢰와 폭탄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교과서 대신 '위험'을 먼저 배우고, 생존 교육부터 받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 그저 안타깝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동국대 캠퍼스 전법일기 ② 메타모던 시대, 방편이 된 불교

대학 생활, 불교로 함께 열어 가다

제가 지도법사로 있는 동아리의 이름은 '템플애플'입니다. 단과대 사회과학대학을 줄여 '사과대'라고 부르자, 학생들은 사과, 즉 애플로 동아리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국대 단과대 최초의 불교동아리 템플애플은 2024년 3월 20일 100여 명 학생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약 2년이 지난 현재 템플애플의 회원 수는 500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전법과 단과대별 불교동아리 조직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아낌없는 지원으로 든든한 울타리가 돼 주신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총장님, 그리고 건학위원회를 비롯, 학교 교직원 선생님들, 다양한 관심사로 동아리의 문을 여는 학생들, 무엇과 어떻게에 대해 고민하는 임원진 학생들, 이들의 조력자인 지도법사 스님들과 지도 교수님들이 불교로 하나가 됐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템플애플 회원들은 점심시간 샌드위치를 먹으며 법회도 열고, 다른 전공의 친구들과 해외 불교를 주제로 미국으로 학술 탐방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정각원에 모여 자비명상을 하고, 제등행렬을 위해 학업 시간을 쪼개 아기코끼리등을 만드는가 하면, 부처님오신날 재치 있는 키워드 N행시 공모전도 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시내 사찰들을 방문하고, 동국청년 수계식 주인공 행사를 맡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템플스테이도 다녀오며, 스님들에게 연애와 주식에 실패한 얘기도 털어놓는 등 템플애플의 활동은 언제나 학생들 스스로가 고민·계획하고 준비해서 진행됐습니다.

동국대서 스스로 피어난 템플애플

학교 구성원 아낌없는 지원·관심 덕

학생들도 자기 돌봄 위해 불교 수용

포스트모던 이후 지금의 시대를 메타모던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메타모더니즘의 핵심은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양극단 사이를 끊임없이 교차하는 진동입니다. 이는 단순히 중간 지점을 찾는 '균형'이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가치, 즉 희망과 우울, 전통과 혁신, 신념과 회의, 세계와 지역 등의 사이를 쉼 없이 가로지르는 추의 역동적인 운동을 의미합니다. 메타모던 시대 대학생들은 특정 종교의 교리나 도그마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영적 질문들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통적인 거대 종교와 무속신앙, 디지털 문화, 그리고 개인화된 의미 부여가 결합된 새로운 차원의 융합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개인주의적 성향을 띠는 듯하지만, 그 내면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바라보는 관점도 교리적 믿음이나 특정 종교 소속이나 종교적 의무를 중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필요한 방식으로 수용·적용하고 자기 계발이나 마음치유의 방편으로 심리적 평온과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집중합니다. 무조건 믿어야 하는 종교보다는 나를 돌보는 방편으로서 말이죠.

치열하게 종교를 재해석하며 그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시대의 대학생을 기존 신도조직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종교'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는지, 조직의 취지와 학생들의 참여 사이, 타율과 자율 사이의 균형은 잘 맞아가고 있는지 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템플애플의 지도법사로서 '나는 그들이 불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이고득락하기를 원하는가?'라고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곤 합니다. 후자를 먼저 생각하면서도 둘이 서로 다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살짝 내보여 봅니다.



자헌 스님
동국대 불교학부 조교수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⑤ 선재의 길

성혈사는 우리나라 절집의 꽃살문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일컬어지는 절 가운데 하나로, 특히 나한전의 가운데 칸 두 짝 문에는 하나의 '연못'이 8쪽의 수직 판재에 투각돼 있다. 기법 면에서는 조선 민화를 목조각으로 번역한 듯하고, 이야기의 측면에서는 〈화엄경〉 '입법계품'을 옮겨 놓은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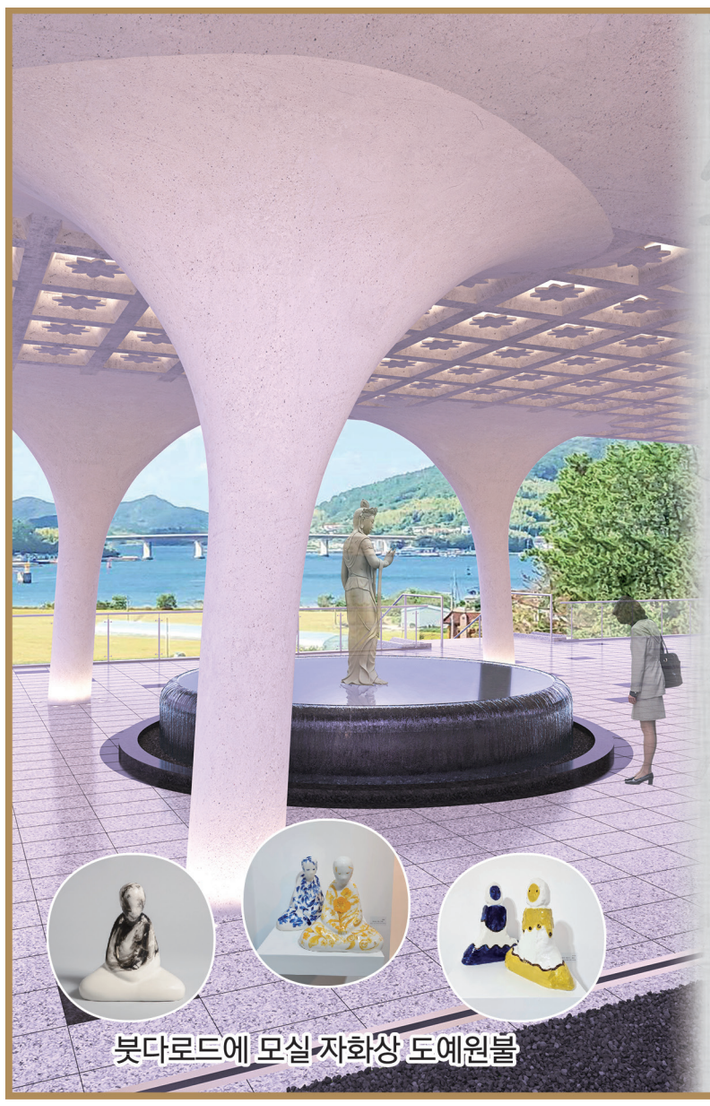
문살 위에 펼쳐진 연못은 '해인(海印)'의 축소판이다. 연꽃의 모양은 다양하다. 활짝 핀 것뿐 아니라 몽우리, 연잎, 연밥으로 다채롭다. '생로병사'의 은유로 읽힌다. 연꽃과 연잎 사이에는 물고기, 게, 개구리, 백로, 거북(자라) 등이 새겨져 있다. 두 짝을 한 폭의 그림으로 봤을 때 화면 오른쪽 가운데에 선재동자가 몽우리 맺은 꽃대를 들고 연잎 위에 앉아 있다. 노 젓는 사공처럼. 유유자적한 풍경 같지만 약육강식이 꼬리를 무는 우비고뇌(憂悲苦惱)의 현장이기도 하다. 우리 사는 세상도 그렇다.

선재동자가 찾은 53선지식 가운데는 외도와 유녀(游女)도 있다. 소박하게 이해하자면, 이 세상을 떠나서 구해야 할 스승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는 얘기일 것이다. 절집 문턱을 드나들면서 귀동냥한바, 보살의 위신력에 의지(기도)해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재의 길이다. 말로는 쉬운데 실로 어려운 길이다. 그나마 70이 넘도록 큰 탈 없이 살아왔으니, 내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무수한 보살들 덕분이려니 한다. 넘치게 감사한 일이다.

손영자 작가



성혈사 나한전.



거북이가 알을 낳고 봉황이 내려앉는 명당

자손대대로 공덕이 이어지는 창건불사에 동참하십시오

거북이 같은 장수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상에 태어나는 큰 공덕이 됩니다.

한려수도의 심장 거제도 제석산이 감싸고 천연와불이 수호하는
대붕안착형·영구은란형 터로 세계적인 불교 성지가 될 것입니다.

동참방법

원불 108만원, 관음보살상1080만원으로 불자님의 원력과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분할 또는 일시금으로 납입 하시면 됩니다. (원불:삼천불, 관음보살상:33불)
계좌 : 부산은행 101-2083-6727-07 문의 : 010-5514-1002 오오! 일사천리

불사개요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이사장 겸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영산대학교 겸임교수)인 평천 범혜스님이 세계적인 불교 성지 탄생을 위해 여러 불자님의 원력을 모아 창건하는 신개념 사찰입니다.
세계적 건축 명장의 초현대적 감성과 불교 사상·우주관을 융합하여 남섬부주에서 9산8해의 중심 수미산 정상에서 설법하는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33수행계단을 오르며 번뇌 망상을 비우고 또 비워서 비로소 참나를 찾아 도자기 원불에 자신만의 자화상이나 원력을 그려 넣어 도예작품으로 완성하여 붓다로드에 모십니다.
부처님의 상징인 흰코끼리 건축물, 수미산 형상의 코끼리 코기둥, 제석천 위 허공에 모신 실물 불상, 바다 위 허공에 모신 실물 33관음보살상, 종이 소재의 법당기둥, 구품연지, 금강저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찰건축 작품입니다.

더뷰비전센터 평천 범혜 합장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525-3)



부처님은
누구든지 정법이 머무는 도량을 세우고 공양하면 그 공덕은 인간세계에서나
하늘 세계에서 널리 빛나며 끊이지 않고 세세생생 영속해서 번뇌와 업을 소멸
하는 힘이 있기에 자자손손 부귀공명을 누리고 천상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건 불사는 부처님 법이 오래도록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는 수행 터전을 마련하는 숭고한 의미를 지닌 선근공덕입니다.

붓다로드에 모실 자화상 도예원불